

로이터

금리 · 선거 · 실적이 4분기 강세 시험

S&P500은 올해 약 13% 올랐지만 10년물 금리는 24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4분기 평균 +4.2%

10년물 금리 5.34%

2026-10-02 19:11 · 루이스 크라우스코프

Reuters 「Wall St Week Ahead Spiking bond yields,
midterms, earnings to test US stocks' typical fourth-
quarter strength」 (2026-10-02)

— 숫자로 보는 4분기

계절성은 우호적입니다

1945년 이후 4분기 평균 상승률

+4.2%

상승 확률 85% · 다른 분기의 2배 이상

중간선거 해 4분기 평균

+6.4%

선거 불확실성이 걷히는 효과

S&P500 올해 상승률(10/2)

약 13%

8월 중순 최고치보다 약 1% 낮음

Reuters 「Wall St Week Ahead Spiking bond yields, midterms, earnings to test US stocks' typical fourth-quarter strength」 (2026-10-02)

— 중간선거

11/3 선거 전 조정 경계

- 1** 중간선거 해 S&P500은 평균 **15%** 하락을 겪었지만, 2026년 최대 낙폭은 **9%**입니다.
- 2** 웰스파고 투자연구소는 선거일까지 조정 가능성을 크게 경계했습니다.
- 3**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면 정책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 4** 조정이 오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Reuters 「Wall St Week Ahead Spiking bond yields, midterms, earnings to test US stocks' typical fourth-quarter strength」 (2026-10-02)

가장 큰 역풍은 금리

- 1 10년물 금리는 10/1 5.34%로 24년 만의 최고치입니다.
- 2 배경은 성장 기대, 에너지발 물가, AI 투자용 회사채 발행입니다.
- 3 연준은 9월 3년 만에 처음 금리를 올렸습니다.
- 4 10/7 의사록이 10월·12월 추가 인상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10/2 고용 지표가 약하게 나온 뒤에도 시장은 10월 말 회의의 연속 인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3분기 실적 시즌

AI 설비투자가 핵심

- 1 S&P500 3분기 이익은 전년 대비 30% 넘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2 10/5 주간 펩시코·델타항공, 그다음 주 대형 은행이 실적을 냅니다.**
- 3 얼라이언스번스틴은 하이퍼스케일러 설비투자 수정을 가장 먼저 볼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자료: LSEG IBES

Reuters 「Wall St Week Ahead Spiking bond yields, midterms, earnings to test US stocks' typical fourth-quarter strength」 (2026-10-02)

— 한눈에 정리

4분기 증시 점검표

- 1 4분기는 평균 **+4.2%**, 중간선거 해는 **+6.4%**로 강했습니다.
- 2 10년물 **5.34%**가 가장 큰 부담이며 10/7 의사록이 다음 단서입니다.
- 3 3분기 이익 **30%+** 기대 속 AI 설비투자 수정이 관건입니다.

Reuters 「Wall St Week Ahead Spiking bond yields, midterms, earnings to test US stocks' typical fourth-quarter strength」 (2026-10-02)

블룸버그 · 미국 증시

블룸버그

AI 랠리 이어가는 월가, 금리 급등에 긴장

나스닥100은 사상 최고치지만 10년물은 2002년 이후 처음 5.3%를 넘었습니다.

10년물 5.3% 돌파

기술 업종 3분기 EPS +65%

2026-10-04 22:00 · 카먼 라이니키

Bloomberg 「Wall Street's AI Party Is on Edge as Soaring Yields Raise Risks」 (2026-10-04)

1/7 · TOP PICKS 주식

— 숫자로 보는 현재

금리와 주가가 함께 높습니다

30년물 국채 금리

5.69%

2002년 이후 처음 도달한 수준

나스닥100 올해 상승률

+22%

10/2 사상 최고치 경신

S&P500 선행 주가수익비율

19배 미만

5월 21배 이상에서 하락

— 이익 기대

밸리를 받치는 3분기 EPS

기술 업종 3분기 EPS 증가율

65% 이상

에너지 다음으로 빠른 증가 예상

S&P500 3분기 EPS 증가율

24% 이상

현실화하면 3분기 연속 20%+

상승 기여 상위는 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애플입니다. 자료: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기대와 우려를 오간 몇 달

- 1** AI 투자 회수 시점과 기술 위험을 둘러싸고 심리가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 2** 이란 전쟁, 유가발 물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부담입니다.
- 3** 자금은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 매그니피센트 7로 옮겨 갔습니다.
- 4** 매그니피센트 7은 7월 말 이후 시장 수익률을 웃돌았습니다.

2023년과 달라진 점

- 1 2023년 10년물 5% 때는 현금 많은 대형 기술주가 S&P500 +24%를 이끌었습니다.
- 2 올해 알파벳·아마존·메타는 연간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 3 하이퍼스케일러 부채 비율이 향후 2년간 높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 4 EBITDA 증가 기대로 신용등급은 아직 영향이 없습니다.

10년물 6%가 분기점

- 1 프랭클린 템플턴 인스티튜트는 10년물 6%면 다른 국면이라고 봤습니다.
- 2 노스웨스턴 뮤추얼은 10년물이 약 100bp 움직여야 주가에 영향이 온다고 봤습니다.
- 3 기술주가 조정을 받으면 시장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 4 종전에 따른 유가 하락 기대가 강세를 받치지만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한눈에 정리

AI 랠리와 금리

- 1** 10년물 5.3%, 30년물 5.69%에도 나스닥100은 최고치입니다.
- 2** 기술 업종 3분기 EPS 65%+ 기대가 랠리를 받치고 있습니다.
- 3** 대형 기술주의 차입 확대와 10년물 6%가 남은 위험입니다.

Bloomberg 「Wall Street's AI Party Is on Edge as Soaring Yields Raise Risks」 (2026-10-04)

7/7 · TOP PICKS 주식

마켓워치

10월 증시 공포, 기록으로 보면 과장

10월 평균 수익률은 0.5%이며, 올해 위험 요인은 금리와 AI
쏟림입니다.

10월 평균 +0.5%

상승 확률 58%

2026-10-04 22:00 · 조지프 아디놀피

MarketWatch 「October can be a scary month for stocks.
Here's what investors need to watch this year.」 (2026-10-
04)

— 월별 평균 수익률

10월은 하위권, 최하위 아님

S&P500 · 1928년 이후

월	평균	월	평균
1월	1.2%	7월	1.7%
2월	-0.1%	8월	0.7%
3월	0.5%	9월	-1.1%
4월	1.4%	10월	0.5%
5월	0.1%	11월	1.0%
6월	0.8%	12월	1.3%

평균이 마이너스인 달은 2월과 9월뿐입니다. 자료: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

MarketWatch 「October can be a scary month for stocks. Here's what investors need to watch this year.」 (2026-10-04)

나쁜 평가를 남긴 급락

연도	사건
1929·1987년	10월 폭락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뒤 저점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2년	닷컴 약세장 바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그리스 부채 위기
2022년	최근 약세장 저점

MarketWatch 「October can be a scary month for stocks. Here's what investors need to watch this year.」 (2026-10-04)

금리와 AI 쏠림

- 1** 9월 국채 금리 상승은 미국 증시 대부분에 부담이었습니다.
- 2** 기술 업종은 9월 S&P500에서 유일하게 오른 업종이었습니다.
- 3** 데이터트렉 리서치는 이런 쏠림으로 시장이 취약해졌다고 봤습니다.
- 4** AI 종목도 금리 상승을 오래 버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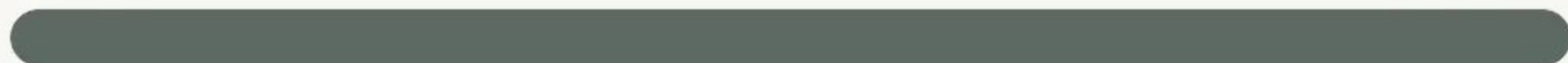
MarketWatch 「October can be a scary month for stocks. Here's what investors need to watch this year.」 (2026-10-04)

— 낙관할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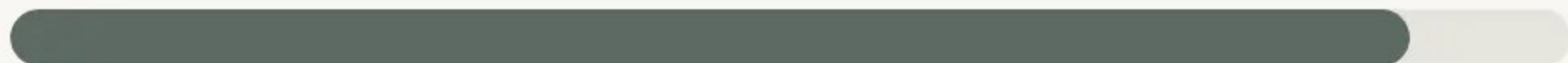
사상 최고치 마감 횟수

S&P500 · 월별 상위와 9~10월

11월 **17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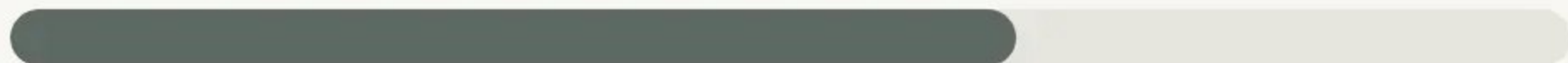
7월 **156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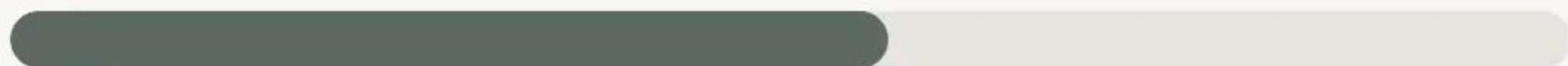
1월 **132회**



10월 **112회**



9월 **98회**



1950년 이후 중간선거 해의 선거 전 1개월 동안 S&P500은 평균 3.9% 올랐습니다.

MarketWatch 「October can be a scary month for stocks. Here's what investors need to watch this year.」 (2026-10-04)

— 대응 방법

VIX로 보는 저가 매수 시점

VIX 27~43일 때 1개월 뒤 상승 확률

70%

S&P500 기준 · 27은 장기 평균보다 1표준편차 위

VIX 장기 평균

19.4

데이터트렉 리서치 기준

10/2 VIX

약 15.5

최근 낮은 수준 유지

MarketWatch 「October can be a scary month for stocks.
Here's what investors need to watch this year.」 (2026-10-04)

— 한눈에 정리

10월 증시 점검표

- 1** 10월 평균 **+0.5%**, 상승 확률 **58%**로 평판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 2** 올해 위험은 금리 상승과 AI 소수 종목 쏠림입니다.
- 3** 급락 시 **VIX 27~43** 구간은 과거 1개월 상승 확률 **70%**였습니다.

MarketWatch 「October can be a scary month for stocks. Here's what investors need to watch this year.」 (2026-10-04)

7/7 · TOP PICKS 주식

로이터 · 연준

로이터

연준, 10월 동결 뒤 12월 인상 유력

9월 고용이 29,000명 증가에 그치며 10월 인상 확률은 약 25%입니다.

10월 인상 확률 약 25%

9월 고용 +29,000명

2026-10-02 21:58 · 앤 새퍼

Reuters 「Fed may skip October but pull rate hike trigger in December」 (2026-10-02)

1/6 · TOP PICKS 주식

— 숫자로 보는 지표

고용은 약하고 물가는 높습니다

9월 비농업 고용

+29,000명

예상 90,000명 하회 · 8월도 하향 수정

9월 실업률

4.2%

4.1%에서 상승 · 신규 노동력 유입 영향

8월 연준 목표 물가 지표

3.4%

2% 목표 크게 상회 · 예상보다는 낮음

추가 인상 전 지표 확인

- 1 **워시 의장은 위험 판단과 금리 경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 2 **제퍼슨 부의장과 윌리엄스 총재는 지표를 더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3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문제는 물가이며 모든 선택지가 열려 있다고 봤습니다.**

위원들은 물가 충격이 이어지면 연말까지 최소 1회 더 올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10월 동결, 12월 인상 유력

항목	내용
10월 인상 확률	약 25%
12월 인상 확률	압도적으로 높음
장기 국채 금리	10/1 24년 만의 최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7% 상회
다음 회의	10월 27~28일

자료: CME 페드워치

관건은 물가 지표

- 1** JP모건은 아주 강한 소비자물가가 아니면 **10월 인상**은 어렵다고 봤습니다.
- 2** 근원물가가 끈적하면 **12월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 3** 피프스서드는 고용보다 물가·휘발유 가격·지정학이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9월 고용은 11월 중간선거 전 마지막 종합 고용 지표입니다.

— 한눈에 정리

연준 10월·12월 점검

- 1** 9월 고용 +29,000명으로 10월 동결 기조가 유지됐습니다.
- 2** 10월 인상 확률 약 25%, 12월 인상 확률은 압도적입니다.
- 3** 회의 직전 소비자물가가 판단을 바꿀 수 있습니다.

Reuters 「Fed may skip October but pull rate hike trigger in December」 (2026-10-02)

6/6 · TOP PICKS 주식

마켓워치

연준 의사록에서 찾는 추가 인상 단서

필자는 실질 기준금리가 약 50bp로 낮아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8월 PCE 3.4%

실질 기준금리 약 50bp

2026-10-04 21:00 · 마이클 크레이머(모트 캐피털)

MarketWatch 「Opinion: Fed minutes coming this week could give markets important clues about future rate hikes」 (2026-10-04)

— 의사록이 중요한 이유

10/7 공개되는 9월 의사록

- 1** 9월 0.25%p 인상의 판단 과정이 담깁니다.
- 2** 워시 의장은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3** 필자는 완화를 **일부만** 건어 내 추가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MarketWatch 「Opinion: Fed minutes coming this week could give markets important clues about future rate hikes」 (2026-10-04)

— 금융 여건 지표

아직 느슨한 금융 여건

- 1** 시카고 연은 금융여건지수는 **2022년 가을 정점** 이후 꾸준히 완화됐습니다.
- 2** ICE BofA 하이일드 가산금리는 이보다 좁았던 적이 **몇 차례뿐**입니다.
- 3** 필자는 긴축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MarketWatch 「Opinion: Fed minutes coming this week could give markets important clues about future rate hikes」 (2026-10-04)

— 8월 물가

물가는 7월과 같았습니다

8월 PCE(전년 대비)

3.4%

2021년 초 이후 대부분 2.5% 이상

8월 근원 PCE

3.0%

7월과 같음

실효 연방기금금리

약 3.9%

PCE를 빼면 실질 약 50bp

MarketWatch 「Opinion: Fed minutes coming this week could give markets important clues about future rate hikes」 (2026-10-04)

— 실질 기준금리 비교

2006년보다 300bp 넘게 낮음

시점	PCE	실질 기준금리
2006년 중반	3.3~3.5%	1.5~2.0%
2006년 10월	하락	3.6%
현재(PCE)	3.4%	약 50bp
현재(근원)	3.0%	약 90bp

2006년은 워시 의장의 첫 연준 이사 재임기입니다. 필자는 의사록에 향후 가이드스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 한눈에 정리

필자가 본 금리 경로

- 1** 9월 인상은 완화를 **일부만** 걷어 낸 것이라고 봤습니다.
- 2** 금융 여건은 느슨하고 8월 PCE는 **3.4%**입니다.
- 3** 실질 기준금리 **약 50bp**는 2006년보다 300bp 넘게 낮습니다.

MarketWatch 「Opinion: Fed minutes coming this week could give markets important clues about future rate hikes」 (2026-10-04)

마켓워치

1970년대를 닮아 가는 미국

임금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에너지 위기가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9월 시간당 임금 +0.13%

9월 소비자물가 +0.53%(추정)

2026-10-04 08:58 · 브렛 에런즈(마켓워치 칼럼니스트)

MarketWatch 「Opinion: Falling wages, soaring energy prices and inflation: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the 1970s」 (2026-10-04)

— 숫자로 보는 9월

임금보다 빠른 물가

9월 평균 시간당 임금

+0.13%

5센트 상승 · 세전 기준

9월 소비자물가(클리블랜드 연은 추정)

+0.53%

임금 상승률의 4배 · 연율 6.5%

최근 1년 임금 · 물가

3% · 3.6%

실질 임금이 2024년 가을 수준으로

MarketWatch 「Opinion: Falling wages, soaring energy prices and inflation: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the 1970s」 (2026-10-04)

— 에너지 위기

필자가 본 물가 원인

- 1**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1970년대 OPEC 석유 금수와 비슷한 충격으로 봤습니다.
- 2** 경유 가격 급등으로 물가 전반이 계속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 3** 9월 일자리 증가는 예상치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 4** 1970년대 미국 실질 평균 임금은 **7%** 내렸습니다.

공식 물가 지표는 10/14 발표됩니다.

— 1970년대 10년 성적

자산별 실질 수익률

자산	10년 합계(물가 차감)
S&P500	+4%
단기 국채·현금	-11%
투자등급 회사채	-17%
10년 만기 국채	-35%
에너지주	약 2배
금	+500% 이상

1970년 1월~1980년 1월, 세전 기준. 자료: 뉴욕대 스톤 경영대학원, 케네스 프렌치 교수

1970년대식 방어 전략

- 1** 가계 지출을 줄이고 **생활수준 정체**에 대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2** 은퇴 자산에 **금(SGOL) · 에너지주(XLE) · 물가연동국채(SCHP)**를 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3** TIPS 단기물도 물가보다 **연 2.5%p** 높은 수익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 4** 장기물 실질금리는 약 **3.3%**이며, 저위험 방법으로 단기 TIPS ETF(STIP)를 들었습니다.

— 한눈에 정리

세 가지로 정리

- 1** 9월 임금은 **0.13%**, 물가는 **0.53%** 올라 실질 임금이 내렸습니다.
- 2** 필자는 **호르무즈 해협** 발 에너지 위기를 물가 상승의 주원인으로 봤습니다.
- 3** 1970년대에는 **에너지주와 금**이 물가를 크게 이겼으며 방어 자산을 권했습니다.

MarketWatch 「Opinion: Falling wages, soaring energy prices and inflation: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the 1970s」 (2026-10-04)

마켓워치

가장 낙관적인 실적 전망

3분기 EPS 가이드언스를 낸 S&P500 116곳 중 72곳이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예상 상회 72곳(역대 최대)

3분기 이익 +29.5% 예상

2026-10-04 23:00 · 빌 피터스

MarketWatch 「Corporate America has never been this
upbeat about future profits」 (2026-10-04)

— 숫자로 보는 기사

팩트셋 집계 세 가지

예상을 웃돈 3분기 EPS 가이드스

72곳

가이드스 116곳 중 · 종전 기록 2021년 2분기 65곳

정보기술 업종 상향 가이드스

44곳

2026년 2분기와 같은 최고 기록

S&P500 3분기 이익 증가율 예상

+29.5%

자료: 팩트셋

— 기술 업종 주도

AI 반도체 수요가 원동력

- 1** 엔비디아(NVDA)와 마이크론(MU)은 AI 인프라용 반도체 수요의 수혜를 입었습니다.
- 2** AI 반도체 기업 다수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을 올렸습니다.**
- 3** 가격 인상은 이들 기업의 **이익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MarketWatch 「Corporate America has never been this upbeat about future profits」 (2026-10-04)

— 개별 기업

예상을 넘은 두 기업

- 1 슈퍼마이크로컴퓨터(SMCI)**는 9/30 끝난 분기 EPS 가이드نس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 2 찰스 리앙 CEO**는 8월 AI·IT 제품 수요가 **사상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 3 테라다인(TER)**도 예상을 웃도는 3분기 EPS 가이드نس를 냈습니다.
- 4 그렉 스미스 CEO**는 모든 사업부에서 **AI 수요**가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눈에 정리

세 가지로 정리

- 1** 예상을 웃돈 3분기 가이던스는 **72곳**으로 집계 이래 최대입니다.
- 2** 정보기술 업종이 **44곳**으로 낙관론을 이끌었습니다.
- 3** 팩트셋은 S&P500 3분기 이익이 **29.5%**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arketWatch 「Corporate America has never been this upbeat about future profits」 (2026-10-04)

CNBC 프로 · 애널리스트 콜

CNBC

JP모건 10월 추천 종목

전략별 비중확대 종목 목록을 새로 내고 5개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신규 편입 5종목

AXP · TMO · LBRT 포함

2026-10-04 22:17 · 리즈 나폴리타노 · 유료기사

CNBC 「JPMorgan's best stock ideas heading into October」 (2026-10-04)

1/5 · TOP PICKS 주식

— 시장 흐름

9월과 3분기 지수 등락

지수	9월	3분기
S&P500	-0.5%	+2% 이상
다우	-4.3%	-3%
나스닥 종합	+1.9%	+2% 이상

JP모건 목록은 성장·인컴·가치·공매도 전략별 비중확대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 추가 종목

새로 들어간 3종목

종목	분류	주가 흐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XP)	가치	연초 대비 -18%
리버티 에너지(LBRT)	성장	1년 +52%
써모 피셔(TMO)	성장	3개월 +25% 이상

CNBC 「JPMorgan's best stock ideas heading into October」 (2026-10-04)

3/5 · TOP PICKS 주식

— 애널리스트 근거

JP모건이 본 이유

- 1** 세인은 AXP의 높은 수익성과 해마다 **주식 수 3%**의 주주환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2** 자야람은 데이터센터 전력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 3** 우드링은 TMO가 **AI 확산**과 미국 바이오의약품 리쇼어링으로 더 오른다고 봤습니다.

— 한눈에 정리

세 가지로 정리

- 1** JP모건은 10월 비중확대 목록에 **5개 종목**을 추가했습니다.
- 2** AXP는 **가치주**, LBRT와 TMO는 **성장주**로 편입됐습니다.
- 3** LBRT는 **AI 전력 수요**, TMO는 AI 확산과 리쇼어링이 근거입니다.

CNBC

상위 애널리스트 추천 3종목

코어워브 · 팔로알토 · 아마존 목표주가가 모두 올라갔습니다.

코어워브 매수 상향 125달러

아마존 목표주가 360달러

2026-10-04 22:24 · 자료: 팁랭크스

—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세 종목 한 번에 보기

종목	증권사	의견 · 목표주가
코어워브(CRWW)	JP모건	매수 상향 · 125달러
팔로알토(PANW)	BTIG	매수 · 425달러
아마존(AMZN)	로젠블랫	매수 · 360달러

이전 목표주가는 코어워브 120달러, 팔로알토 404달러, 아마존 335달러입니다.

가격 인상이 실적 견인

- 1 7월 전 제품 가격을 **25%** 올렸습니다.
- 2 3분기 계약 단가는 MW당 약 **4,000만 달러**입니다.
- 3 가격 인상이 계약 마진을 **5~10%p** 높이고 있다고 봤습니다.
- 4 마진 개선이 설비투자용 **부채 증가**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봤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높은 전망

2027 회계연도 증가율 · BTIG 대 시장 예상

매출 · BTIG 17% 이상



매출 · 시장 예상 14.6%



NGS ARR · BTIG 26% 이상



NGS ARR · 시장 예상 24.5%



고성장 제품 비중은 매출의 35% 이상, 하드웨어 방화벽과 연계 구독은 50% 미만으로 추정했습니다.

— 아마존

에이전트 커머스 우려는 과장

- 1 AI 에이전트가 상품을 찾아 줘도 **구매와 배송**은 아마존이 맡는다고 봤습니다.
- 2 광고 매출이 일부 줄어도 전체 사업에서 **비중이 작다**고 봤습니다.
- 3 AWS가 연말 **45% 이상**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한눈에 정리

세 가지로 정리

- 1** JP모건은 **가격 인상**을 근거로 코어위브를 매수로 올렸습니다.
- 2** BTIG는 팔로알토 매출 증가율을 **17% 이상**으로 시장보다 높게 봤습니다.
- 3** 로젠블랫은 아마존을 **에이전트 커머스**의 순수혜 기업으로 봤습니다.

블룸버그 · 원유

블룸버그

OPEC+, 11월 생산 쿼터 동결 예정

유가 100달러 속에서 7개국이 기존 로드맵을 유지합니다.

11월 쿼터 동결

유가 배럴당 100달러 선

2026-10-04 16:49 · 살마 엘 와르다니 외

Bloomberg 「OPEC+ Set to Keep Quotas Steady in November, Delegates Say」 (2026-10-04)

1/7 · TOP PICKS 주식

— 숫자로 보는 기사

동결 결정의 배경

OPEC+ 소그룹

7개국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가 이끄는 회원국

유가 선물

100달러

배럴당 · 경유 소매가격은 사상 최고

전체 장관회의

11/29

내년 생산 정책 결정

기사의 다섯 가지

- 1** OPEC+ 7개국이 11월 쿼터 동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 2** 합의는 10/4(일) 화상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 3** 유가 선물은 배럴당 10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 4** 이란 전쟁으로 주요 회원국 생산이 줄어 결정의 실제 효과는 작습니다.
- 5** 내년 정책은 11/29 전체 장관회의에서 정합니다.

— 11월 쿼터

기존 로드맵 그대로

- 1 7개국 소그룹이 11월 생산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2 대표단은 기존 로드맵에 맞춘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 3 8월까지 6개월간 소폭 증산한 뒤 연말까지 증산 중단 신호를 보냈습니다.

Bloomberg 「OPEC+ Set to Keep Quotas Steady in November, Delegates Say」 (2026-10-04)

4/7 · TOP PICKS 주식

— 전쟁의 영향

결정의 효과는 제한적

- 1** 유가가 100달러 선으로 오르자 **G7**은 비상 비축유를 방출했습니다.
- 2** 사우디·이라크·쿠웨이트 생산량은 전쟁 전보다 크게 낮습니다.
- 3** 8월까지의 증산은 상징적이었지만 이론상 2023년 감산분을 되돌렸습니다.

분쟁이 잦아들면 걸프 회원국이 생산을 늘릴 여지가 커집니다.

— 다음 일정

OPEC+가 정할 일

시점	내용
10/4(일)	화상회의 · 11월 동결 확정
연말까지	쿼터 증산 중단
11/29	전체 장관회의 · 내년 정책
다음 과제	2022년 감산분 복원 여부

감산분 복원은 회원국 생산능력 감사 결과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 한눈에 정리

세 줄 요약

- 1 OPEC+ 7개국은 11월 쿼터를 동결합니다.**
- 2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이고 주요 회원국 생산은 전쟁 전보다 낮습니다.**
- 3 내년 정책은 11/29 장관회의에서 정합니다.**

Bloomberg 「OPEC+ Set to Keep Quotas Steady in November, Delegates Say」 (2026-10-04)

7/7 · TOP PICKS 주식

블룸버그 · 원유

블룸버그

이라크, 호르무즈 밖 원유 직접 수송

국영 유조선사가 VLCC로 원유를 해협 밖까지 옮깁니다.

VLCC 1척 · 200만 배럴

수십 년 만의 첫 사례

2026-10-04 19:09 · 살마 엘 와르다니

Bloomberg 「Iraq Shifts Oil Strategy by Arranging Tanker
to Move Past Hormuz」 (2026-10-04)

1/6 · TOP PICKS 주식

기사의 다섯 가지

- 1** 국영 유조선사가 원유 200만 배럴을 호르무즈 해협 밖까지 수송합니다.
- 2** 바스라에서 원유를 넘기던 방식을 걸프 밖 인도로 바꿉니다.
- 3** 호르무즈 통과를 꺼리는 정유사에 팔고 할인 폭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4** 석유장관은 유조선 매입 자금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5** 9월 수출은 늘었지만 전쟁 전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 판매 방식 전환

국영사가 해협 통과

- 1** 이전에는 구매자가 페르시아만 안쪽 바스라로 배를 보냈습니다.
- 2** 이번에는 국영 유조선사가 VLCC에 원유를 싣고 해협 통과를 직접 준비했습니다.
- 3** 걸프 밖 인도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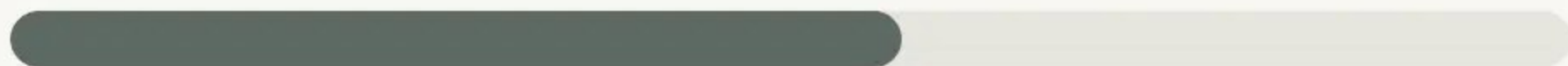
사용 선박과 선주, 최종 목적지와 구매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원유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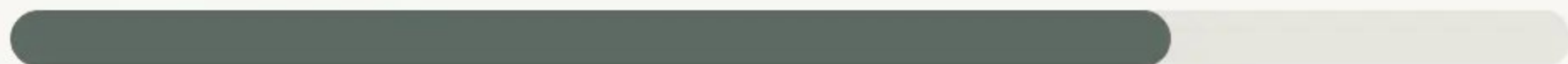
아직 전쟁 전보다 적습니다

하루 평균 · 배럴

8월 약 200만



9월(9/21까지) 약 260만



전쟁 전 330만~350만



자료: 이라크 석유부

Bloomberg 「Iraq Shifts Oil Strategy by Arranging Tanker to Move Past Hormuz」 (2026-10-04)

4/6 · TOP PICKS 주식

수출 통제력 키우기

- 1** 석유장관은 선박 보유가 수출과 수익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2** 카이스 사장은 선박 매입으로 인도 통제력이 커진다고 봤습니다.
- 3** ADNOC 해운 부문 등 중동 산유국도 유조선 확보를 서두릅니다.
- 4** 튀르키예 북부 경로와 시리아 바니아스항 송유관도 추진합니다.

— 한눈에 정리

세 줄 요약

- 1** 이라크가 원유를 호르무즈 밖까지 직접 수송합니다.
- 2** 목적은 정유사 접근을 넓히고 할인 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 3** 9월 수출은 하루 약 260만 배럴로 전쟁 전보다 적습니다.

NBC 뉴스

홀로서기 가능성 앞의 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대만 무기 패키지를 보류했습니다.

보류된 무기 패키지 140억 달러

F-16V 66대 중 2대 도착

2026-10-04 18:00 · 미틸 아가르왈

— 숫자로 보는 기사

대만 무기 지원 현황

보류된 대만 무기 지원 패키지

140억 달러

중국과의 협상을 위해 보류

지난해 12월 승인한 지원 패키지

110억 달러+

중국 반대에도 승인한 사상 최대 규모

F-16V 블록70 인도

2대 / 66대

2019년 주문 · 수개월 지연 끝 도착

— 미국 측 발언

무기 판매를 둘러싼 발언

- 1** 퍼듀 주중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무기 구매 의향**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 2**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무기 판매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 3** 국무부는 미국 법이 **중국 무기 판매를 금지**하며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4** 루비오 국무장관은 무기 판매에 **생산 능력과 자국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 대만의 시각

거래적 외교에 대한 우려

- 1** 쑤쯔원 부장은 대만이 생존은 스스로의 책임임을 인식한다고 봤습니다.
- 2** 월리엄 양은 승인 지연을 시 주석과의 일시적 안정을 우선한 계산으로 봤습니다.
- 3** 차이나타임스 사설은 무기가 **이윤 상품이자 협상 카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리슝 국방부장은 미국에서 대만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확답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한눈에 정리

세 가지로 정리

- 1** 미국은 **140억 달러** 규모 대만 무기 패키지를 보류했습니다.
- 2** 국무부는 중국에 무기를 팔 계획이 없고 **대만 정책도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 3** 2019년 주문한 F-16V가 도착하는 등 **기존 계약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 주식 발행

블룸버그

AI 열풍에 홍콩 주식 발행 사상 최대

7~9월 IPO·유상증자·블록딜로 475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7~9월 475억 달러

10대 거래 중 2건만 공모가 위

2026-10-04 09:00 · 줄리아 피오레티 외

Bloomberg 「AI Deal Frenzy Powers Hong Kong
Fundraising to Record Summer」 (2026-10-04)

1/8 · TOP PICKS 주식

— 숫자로 보는 기사

기록적인 3분기

홍콩 7~9월 조달액

475억 달러

같은 기간 사상 최대

홍콩 연초 이후 누적

920억 달러

넘는 규모로 2021년 기록 1,125억 달러에 근접

아시아태평양 3분기

1,200억 달러

넘는 규모로 같은 분기 6년 만에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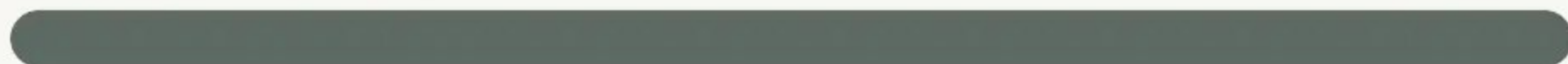
기사의 다섯 가지

- 1** 홍콩 7~9월 조달액은 475억 달러로 같은 기간 최대입니다.
- 2** 중국 AI 기업이 더 큰 금액을 더 자주 조달했습니다.
- 3** 인도는 7월 이후 260억 달러로 분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 4** 7월 이후 홍콩 10대 거래 중 공모가 위 종목은 2건뿐입니다.
- 5** 투자은행들은 연말로 갈수록 투자자가 더 선별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주요 거래 규모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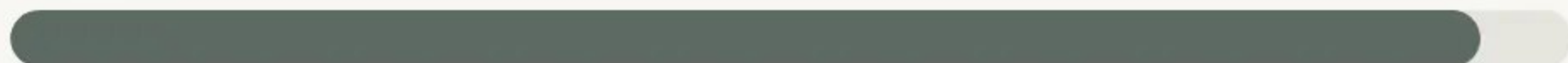
알리바바 유상증자 102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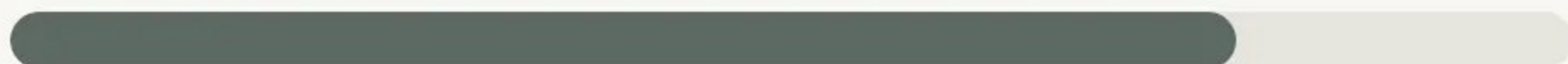
창신메모리 IPO(본토) 99억



Z.AI 올해 누적 96억



중지쉬창 홍콩 상장 약 80억



골드만삭스 제임스 왕은 재조달 간격이 1~2년에서 3개월로 줄었다고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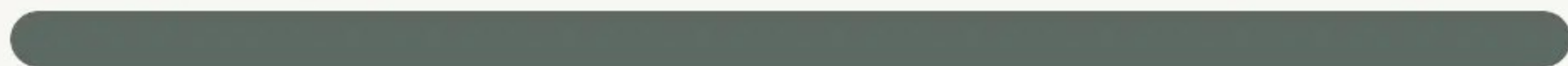
— 지역별 3분기

아시아 전반의 조달

7~9월 · 억 달러

아시아태평양

1,200억 이상



홍콩

475억



인도(7월 이후)

260억



폴 찬 홍콩 재정사는 중동 펀드의 홍콩 투자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분기 사상 최대 조달

- 1** 정부가 인도생명보험공사 지분 32억 달러를 매각했습니다.
- 2** 인도국립증권거래소 IPO는 24억 달러로 인도 역대 2번째입니다.
- 3** 니프티50 지수가 고점보다 약 9.5% 내렸지만 국내 유동성이 수요를 받쳤습니다.
- 4** 지오 플랫폼스가 11월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상장 후 주가 부진

- 1** MSCI 아시아태평양 지수는 7월 한때 7% 내렸습니다.
- 2** 7월 이후 홍콩 10대 거래 중 2건만 공모가를 웃돕니다.
- 3**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세계 금융 여건을 조입니다.
- 4** 쉬인과 롱시스는 상장 첫날 하락했습니다.

대기 물량은 많습니다. 필리핀 민트의 사상 최대 IPO, 호주 피르무스 그리드의 50억 달러 IPO가 예정돼 있습니다.

— 한눈에 정리

세 줄 요약

- 1 AI 기업 조달로 홍콩 7~9월 주식 발행이 475억 달러로 최대입니다.**
- 2 인도도 260억 달러로 분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 3 상장 후 주가 부진으로 연말에는 투자자가 더 선별적일 전망입니다.**

2026·2027년 미즈호 세계경제 전망

호르무즈 봉쇄에도 세계 성장 3%대 유지

AI·레질리언스 투자가 받쳐 고물가·고금리 속에서도
성장이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세계 성장률 3.1% → 3.2%

WTI 약 90달러 고공 유지

2026-10-02 · 미즈호종합연구소 조사부

새로운 정상의 숫자

세계 실질 성장률(2026·2027년)

3.1% · 3.2%

6월 전망보다 0.2%포인트 · 0.1%포인트 상향

WTI 유가

약 90달러

2027년 중반까지 배럴당 고공 유지

일본은행 정책금리 종착점

2.0%

2027년 중반까지 분기마다 1차례 인상

미즈호가 본 다섯 가지

- 1** AI·레질리언스 투자가 받쳐 세계 성장률 **3%대**를 유지합니다.
- 2** 고물가·고금리가 일상화된 **새로운 정상**이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 3** 연준과 ECB는 2026년 안에 **1차례 더** 금리를 올린다고 예상했습니다.
- 4** 중국은 **4.3% → 3.8%**로 둔화하고 아시아 성장은 NIEs에 집중됩니다.
- 5** 일본은 2027년도 **1.3%** 성장으로 소비세 인하 효과를 봅니다.

세계와 선진국

지역	2025	2026	2027
세계	3.4	3.1	3.2
미국	2.3	2.2	2.2
유로존	1.2	1.0	1.4
영국	1.3	1.1	1.2
일본	1.2	0.8	1.0
일본(회계연도)	0.9	0.8	1.3

실질 GDP 전년 대비(%)이며, 2026·2027년은 미즈호 전망치입니다.

중국과 아시아

지역	2025	2026	2027
아시아	5.5	5.2	4.5
중국	5.0	4.3	3.8
NIEs	4.1	5.5	2.6
한국	1.1	3.1	2.1
대만	8.8	10.1	4.0
ASEAN5	5.1	4.7	4.7
인도	7.3	7.2	6.5

AI 호황의 혜택이 NIEs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된다고 봤습니다.

AI 설비투자의 지속성

- 1** 2026·2027년 성장률은 모두 2.2%로 예상했습니다.
- 2** 하이퍼스케일러는 2조달러가 넘는 수주잔고를 확보했습니다.
- 3** 투자자본이익률이 낮아져 AI 투자 속도는 점차 둔화한다고 봤습니다.
- 4** 감세와 자산 효과로 소비도 견조하다고 봤습니다.

— 중앙은행 전망

올리고 나서 내린다

중앙은행	2026년	2027년
연준	1차례 추가 인상	후반부터 2차례 인하
ECB	1차례 추가 인상	후반부터 인하
일본은행	분기마다 인상	중반 2.0% 도달

일본 10년물 금리는 3%대가 일상화되고, 달러·엔은 150엔 안팎이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2027년도 1.3% 성장

- 1 2026년도 성장률을 0.8%로 6월 전망보다 0.3% 포인트 올렸습니다.
- 2 상향의 주된 이유는 AI 관련 수출 호조입니다.
- 3 2026년도 경상이익은 17.2% 늘 것으로 봤습니다.
- 4 근원 소비자물가는 2026년도 말 3% 안팎까지 오릅니다.
- 5 2027년도에는 소비세 인하와 정부 투자 지원이 성장을 받칩니다.

미즈호 전망 세 줄

- 1** 세계 성장률은 2026년 3.1%, 2027년 3.2%입니다.
- 2** 유가 고공과 투자 수요로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진다고 봤습니다.
- 3** 주요 중앙은행은 2026년 추가 인상 뒤 2027년 후반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

외국인 한 달 새 코스피 20조원 순매도

매도는 SK하이닉스·삼성전자에 몰렸고 10월 들어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순매도 20조3050억원

SK하이닉스 보유율 49.76%

2026-10-04 10:49 · 전예진 기자

— 숫자로 보는 매도

한 달 순매도의 크기

외국인 순매도(9/1~10/2)

20.3조원

애프터마켓 거래 포함

순매수한 날

7일

22거래일 중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

39.66%

유가증권시장 기준

9/28에는 하루에만 3조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 종목별 순매도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

9/1~10/2 외국인 순매도 · 단위 조원

SK하이닉스

12조90억원

삼성전자

5조1860억원

SK하이닉스 보유율 49.76%는 2023년 5월 이후 최저이고,
삼성전자는 46.41%입니다.

— 매도 원인과 변화

매도 원인과 최근 흐름

- 1** 증권업계는 반도체 대형주의 차익 실현을 주요 원인으로 봤습니다.
- 2**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와 주요국 금리 상승도 부담이었습니다.
- 3** 외국인은 10/1 2430억원 순매수, 10/2 1900억원 순매도로 매도가 줄었습니다.

— 실적 시즌

외국인 복귀의 조건

- 1 삼성전자는 10/8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 2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이익 가시성 확보를 수급 회복 조건으로 봤습니다.
- 3 유안타증권 이재원 연구원은 장기 금리 안정을 조건으로 봤습니다.

— 한눈에 정리

세 가지로 보는 기사

- 1 외국인은 한 달간 20조3050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 2 매도의 17조원 이상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였습니다.
- 3 10월 들어 매도가 줄어 3분기 실적 시즌이
변곡점으로 거론됩니다.

한국경제

3분기 발표 전 낮아진 삼전닉스 눈높이

자사주 매입이 끝나 가는데 환율 하락으로 실적 전망은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 3Q 전망 -4.9%

원·달러 환율 -13.4%

2026-10-04 17:09 · 오현아 기자

— 자사주 매입과 수급

9/2~10/2 순매매

주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타법인	+10조8636억원	+22조8797억원
개인	-9조3453억원	-10조4263억원
외국인	-5조13억원	-12조1759억원

기타법인 매수는 사실상 자사주 매입이며 11월 기한보다 이른 10월 중순께 끝날 전망입니다.

— 낮아진 눈높이

한 달 새 바뀐 3분기 전망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8.7조원

한 달 전 114.3조원 대비 -4.9%

SK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77.1조원

한 달 전 78.7조원 대비 -2.1%

원·달러 환율(10/2)

1343.19원

7/1 1550.85원 대비 -13.4%

— 외국인 복귀 조건

신영증권이 본 세 가지

1 VKOSPI 고점 뒤 하락: 96.94 → 40.96

2 개인 매수 약화와 매물 출회

3 시장 기대를 바꾸는 새로운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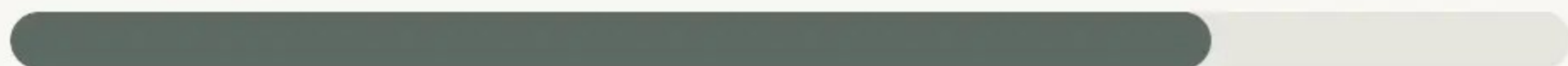
VKOSPI는 6/29에서 10/2 사이 내려왔습니다. 앞의 2가지는 충족됐고, 새 재료로는 3분기 실적, 증익 가이드스, 비트그로스 확대가 꼽힙니다.

— 4분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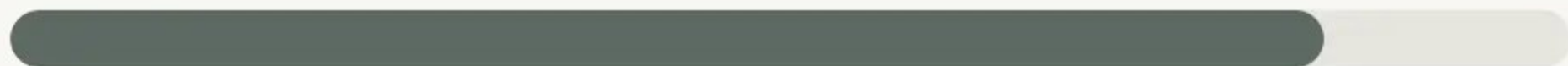
삼성전자 분기 이익 전망

영업이익 컨센서스 ·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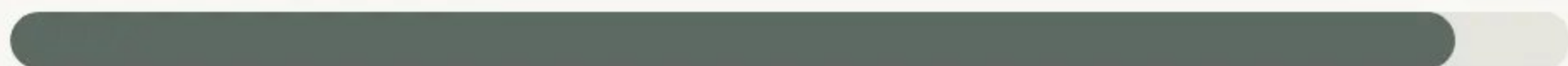
2026년 3분기 108.7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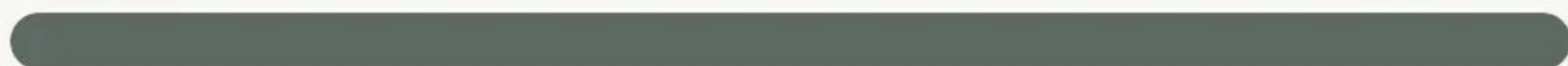
4분기 119.0조원



2027년 1분기 130.9조원



2분기 141.4조원



SK하이닉스는 2027년 2분기 101.2조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3분기 대비 증가율은 삼성전자 30.0%, SK하이닉스
31.2%입니다.

— 실적 안정 요인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

- 1** DS투자증권은 4분기 HBM4 매출 확대가 실적 개선을 이끈다고 봤습니다.
- 2** 두 회사는 하한 가격·선수금을 담은 5년 장기공급계약을 맺었습니다.
- 3** 마이크론 6~8월 매출은 시장 전망치를 6.2% 웃돌았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낸드 생산능력의 60~70%를 장기공급계약으로 채운다는 목표입니다.

— 한눈에 정리

세 가지로 보는 기사

- 1 자사주 매입은 10월 중순께 끝날 전망입니다.
- 2 환율 하락으로 삼성전자 3분기 전망이 4.9% 낮아졌습니다.
- 3 4분기 이후에는 매 분기 증익 전망이 이어집니다.

한국경제 「3분기 성적 발표 전부터 기대 꺾인 삼전닉스...외인 마음
돌릴까」 (2026-10-04)

7/7 · TOP PICKS 주식

한국경제

미국 중간선거 시나리오별 증시 영향

블루웨이브 · 분점정부 · 공화당 현상 유지별 수혜 업종을
정리했습니다.

블루웨이브 확률 62%

분점의회 시 S&P500 +23%

2026-10-04 17:34 · 오현아 기자

— 숫자로 보는 선거

예측시장과 조사기관 전망

민주당 상·하원 동시 석권

62%

폴리마켓 확률

민주당 하원 다수당

72%

디시즌 데스크 · 9/25 기준

민주당 상원 다수당

54%

디시즌 데스크 · 9/25 기준

선거일은 11/3입니다.

— 세 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별 거론 업종

시나리오	구도	거론 업종
블루웨이브	민주당 양원	친환경·ESS
분점정부	하원 민주·상원 공화	신재생 일부
현상 유지	공화당 양원	에너지·금융·가상자산

전력기기(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는 선거 결과와 관계없는 수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친환경 정책 프리미엄 회복

- 1 현대차증권은 IRA 세액공제 복원과 ESS 투자 확대를 예상했습니다.
- 2 수혜주로 한화솔루션, 씨에스윈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를 꼽았습니다.
- 3 블랙록은 불확실성 해소 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혜를 예상했습니다.
- 4 예산안·부채한도 협상이 반복되면 미 국채 금리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분점정부

역사적으로 가장 우호적

- 1 공화당 대통령·분점의회 때 S&P500은 선거 후 12개월간 평균 23% 올랐습니다.
- 2 전체 중간선거 평균 13%를 크게 웃돕니다.
- 3 공화당이 상원을 지키면 IRA 세액공제 복원 같은 입법은 어렵습니다.

자료: 모건스탠리

트럼프 정책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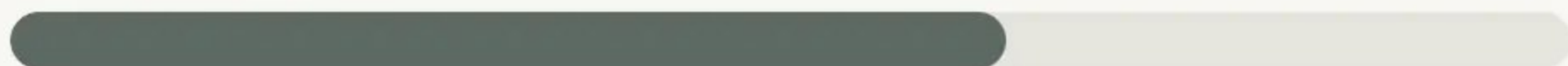
- 1** 감세·재정지출 확대와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질 공산이 큼니다.
- 2** 2024년 당선 직후의 금융·전통 에너지·소형주·가상자산 강세가 재연될 수 있습니다.
- 3** 관세와 외교·안보 정책은 의회 구도와 관계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통 변수

중간선거 해 10~11월 평균

KB증권 집계 · 평균 상승률

S&P500 10월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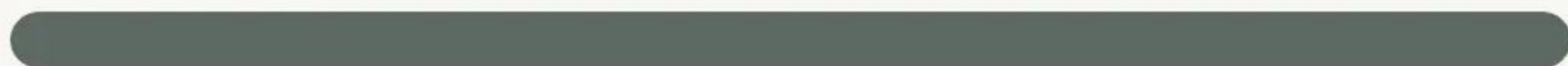
S&P500 11월 **2.7%**



코스피 10월 **2.0%**



코스피 11월 **4.7%**



금리 인상기에는 효과가 약했지만, KB증권은 올해 추가 긴축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봤습니다.

세 가지로 보는 기사

- 1** 시나리오는 블루웨이브·분점정부·현상 유지 3가지입니다.
- 2** 전력기기는 결과와 관계없는 수혜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 3** 어떤 결과든 불확실성 해소 효과가 거론됩니다.

한국경제

월가, AI 인프라 다시 주목

엔비디아 톱픽 재선정, HPE 상향 등 긍정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톱픽

스트래티지 목표가 240달러

2026-10-04 06:00 · 황정수 뉴욕 특파원

엔비디아·HPE·세레브라스

- 1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NVDA)**를 반도체 톱픽으로 다시 선정했습니다.
- 2 다이와증권은 **HPE**를 중립에서 시장수익률 상회로 올렸습니다.
- 3 프리덤 캐피털은 17% 급락한 **세레브라스**를 매수로 올렸습니다.
- 4 에버코어 ISI는 **스페이스X** 그록의 성장성이 저평가됐다고 봤습니다.

의견을 올린 종목

종목	증권사	변경
HPE	다이나	시장수익률 상회
에어비앤비	키뱅크	비중확대
아크시스	RBC	시장수익률 상회
알레라스	파이퍼 샌들러	비중확대
애벗	로스차일드	매수
아르코 페트롤리엄	미즈호	비중확대

모두 중립에서 올린 것입니다. 애벗은 로스차일드앤드코 레드번이
상향했습니다.

새로 분석을 시작한 종목

종목	증권사	의견
블랙록	웰스파고	비중확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웰스파고	비중확대
알레그로	RBC	시장수익률 상회
온투 이노베이션	RBC	시장수익률 상회
그레이엄	JP모건	비중확대
포전트 파워	번스타인	시장수익률 상회

— 목표주가 변경

크게 바뀐 목표주가

스트래티지 · 씨티

136→240달러

비트코인 12개월 전망 11만3400달러 반영

아크시스 · RBC

50→60달러

투자의견도 시장수익률 상회로 상향

노스롭그루먼 · RBC

640→525달러

방산 업황에 신중 · 중립으로 하향

목표주가를 제시한 종목

종목	증권사	목표주가
바이로어	모건스탠리	85달러
엔라이븐	모건스탠리	70달러
디자인 테라퓨틱스	웰스파고	26달러
LB 파마슈티컬스	니덤	68달러
포전트 파워	번스타인	48달러

바이로어 목표주가는 2027년 EBITDA의 약 18배, 포전트 파워는 상승
여력 28%입니다.

기존 긍정 의견 유지

- 1 BoA는 애플(AAPL) 4분기 앱스토어 매출을 88억달러(+1.8%)로 분석했습니다.
- 2 씨티는 넷플릭스(NFLX) 이탈 우려가 과도하다며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 3 번스타인은 나이키(NKE)에 시장수익률 상회를 재확인했습니다.

— 한눈에 정리

세 가지로 보는 기사

- 1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를 반도체 톱픽으로 다시 꼽았습니다.
- 2 산업재·반도체 장비·금융·바이오에 **신규 매수**가 이어졌습니다.
- 3 방산에서는 RBC가 **노스롭그루먼**을 하향했습니다.

한국경제

AI 병목은 반도체보다 에너지

아디안 슈미츠 총괄사장은 AI 기업 조정 뒤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봤습니다.

운용자산 2000억달러

한국 약정 100억달러

2026-10-04 11:34 · 안대규 기자

— 숫자로 보는 아디안

세계 최대 세컨더리 운용사

운용자산

2000억달러

약 272조원 · 1996년 설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1GW

유럽 대체투자 운용사 중 최대 수준

아디안 9호 펀드

40조원

세계 최대 세컨더리 펀드 · 10호 준비 중

투자 성패는 에너지

- 1 반도체는 급성장 뒤 반드시 조정이 오는 경기순환 업종이라고 봤습니다.
- 2 아이슬란드 데이터센터에 4조40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 3 아일랜드 발전회사 에너지아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 AI 전망

조정기 뒤 옥석 가리기

- 1** AI는 전기·인터넷에 버금가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봤습니다.
- 2** 일부 기업의 과잉 증설과 과도한 부채로 과열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 3** 닷컴 버블 때 같은 조정이 AI 시장에도 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유럽 강소기업 인수 제안

- 1 유럽 비상장 정밀기계·산업자동화·첨단 소재 기업
인수를 권했습니다.
- 2 예로 독일 트럼프(TRUMPF)와 미텔슈탄트
강소기업을 들었습니다.
- 3 한국에서는 정밀 제조·헬스케어·식품 중소·
중견기업 직접 투자를 계획합니다.

미국 고금리가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고 사모대출·인프라 자산과 분산
투자를 권했습니다.

— 한눈에 정리

세 가지로 보는 인터뷰

- 1 공급 병목은 에너지에서 더 심각하다고 봤습니다.
- 2 AI 시장 조정 뒤 기업별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봤습니다.
- 3 한국 기업에 유럽 비상장 기업 인수를 권했습니다.

한국경제 「"반도체보다 인프라 병목 더 심각...조정 후 AI기업 옥석 가려질 것"」 (2026-10-04)

6/6 · TOP PICKS 주식

한국경제

주가 반토막 키옥시아, 기관은 재매수

이익 전망은 오르지만 수급 부담이 남아 10월 말 실적이 첫 시험대입니다.

10/2 종가 1만9300엔

6월 말 최고가 3만7566엔

2026-10-04 12:19 · 최만수 도쿄 특파원

— 숫자로 보는 키옥시아

주가와 전망의 괴리

10/2 종가

1만9300엔

주식분할 반영 최고가 3만7566엔의 절반

최고가 웃도는 목표주가

10곳 중 6곳

QUICK 집계 증권사 기준

거래대금

약 1/7

고점 당시 대비

— 다시 사는 기관

기관의 저가 매수

- 1** 미쓰비시UFJ자산운용은 7월에 키옥시아를 편입했습니다.
- 2** SBI오카산자산운용은 7월 전량 판 뒤 8월 일부를 다시 샀습니다.
- 3** 이와이코스모증권은 최고가보다 약 20% 높은 수준을 예상했습니다.
- 4** 랜드 가격 상승으로 EPS 전망치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 AI 불안

주가가 못 따라온 이유

- 1 7월 AI 과잉투자 우려가 커졌습니다.
- 2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주장에 메모리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 3 키옥시아는 낸드 수요를 늘리는 추론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수급 부담

가격대별 누적 거래

연초 이후 거래대금 · 단위 조엔

1만5000~2만엔

약 90조엔

2만~2만5000엔

50조엔 안팎

2만5000~3만엔

50조엔 안팎

신용배율은 20배를 넘습니다. 노무라증권은 급락 뒤 이전 수준 회복에
약 1년이 필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가지로 보는 기사

- 1** 주가는 최고가의 절반이지만 EPS 전망은 오르고 있습니다.
- 2** 쌓인 거래 물량과 신용배율 20배는 단기 부담입니다.
- 3** 10월 말 4~9월기 실적이 첫 시험대입니다.

한국경제

하반기 비용 정점 맞은 네이버

3분기 비용 부담이 정점이고 AI 데이터센터 사업이
10월부터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3Q 영업이익 5367억원

10/2 종가 19만2200원

2026-10-04 14:14 · 고송희 기자

— 숫자로 보는 3분기

3분기 비용 부담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5367억원

전년 대비 -5.9%

3분기 영업비용

3조190억원

전년 대비 +17.6% · 하나증권 추정

최근 한 달 주가

-8.04%

10/2 종가 19만2200원

— 비용이 늘어난 곳

네 가지 비용 증가

- 1 GPU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 2 월드컵·아시안게임 **중계권 비용**
- 3 **커머스 마케팅비**
- 4 네이버페이 커넥트 **단말기 보급 비용**

한화투자증권은 추정치 하향이 끝나면 관심이 AI 데이터센터로 옮겨 갈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질 수 있는 단계

단계	내용
브룩필드 SPV	90억달러 · 이르면 10월 초
엔비디아 투자	10억달러 납입
고객사 계약	3분기 실적 발표 · DAN
1차 구축	2027년 상반기 55MW
확대	2028년 200MW

GPU 임차 가격 상승으로 단기 계약도 검토 중이며, 다올투자증권은 초기부터 10% 이상 이익률을 예상했습니다.

— 매출 전망

2027년부터 본격 매출

2027년 엔터프라이즈 매출

2조1946억원

2026년보다 239.9% 증가 · 다올투자증권

관련 매출 시작

2027년 1분기

빠르면 · 다올투자증권 추정

하나증권은 신사업이 주가 반등을 이끌 시점이 가까워 비중 확대 기회라고 봤습니다.

— 한눈에 정리

세 가지로 보는 기사

- 1 3분기 영업이익은 **5.9% 감소** 전망입니다.
- 2 증권가는 하반기를 **비용 부담의 정점**으로 봤습니다.
- 3 AI 데이터센터 매출은 **2027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

알테오젠 주가 50만원 돌파의 관건

성장 동력과 임상 불확실성, 높은 주가 수준이 함께 있습니다.

평균 목표주가 43만8000원

10/2 종가 25만9500원

2026-10-04 08:00 · 조재길 부국장

— 숫자 3개로 보는 기사

알테오젠의 현재 위치

평균 목표주가(리포트 9건)

43만8000원

현재가 대비 +68.8%

키트루다 큐렉스 2분기 매출

4.6억달러

전분기 대비 +262%

2026년 예상 PER

59.16배

PBR 24.47배

8월 급등 뒤 3주 연속 하락

시점	주간 등락·주가
8월 첫째 주	+28.49% · 30만5000원
8월 넷째 주	시가총액 22.3조원
9월 첫째 주	-9.84%
9월 둘째 주	-7.11%
9월 셋째 주	-5.41%
10/2 종가	25만9500원

10/2 기준 시가총액은 18.1조원으로 8월 고점(32만~35만6000원)보다 크게 낮습니다.

대형 계약 뒤 임상 실패

- 1** 9/2 노바티스와 최대 **32.33억달러** 규모 ALT-B4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 2** 9/9 신한투자증권은 Del-desiran 임상 실패로 SC 전환 대상이 **3개에서 2개로** 줄었다고 봤습니다.
- 3** 목표주가를 내린 뒤에도 신한투자증권 **52만원**이 가장 높습니다.

— 키트루다 SC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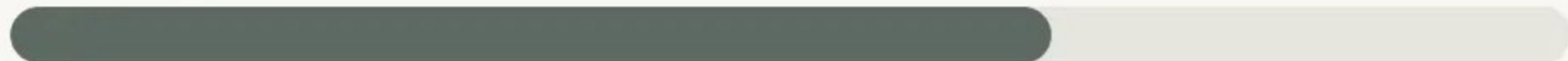
큐렉스 비중 확대 전망

키트루다 전체 매출 가운데 큐렉스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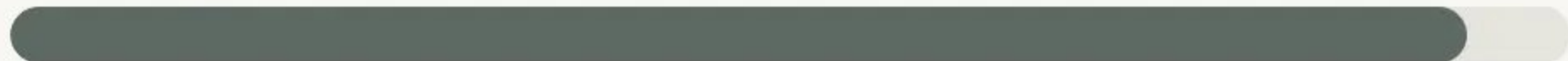
2분기(실적) 5.5%



3분기(전망) 10%



4분기(전망) 14%



8월 첫 판매 마일스톤 2500만달러 수령이 확정됐고, 2028년까지 남은 마일스톤은 10억달러입니다.

— 증권사 목표주가

37만~52만원 사이

구분	목표주가
신한투자증권	52만원(하향 뒤 최고)
IBK투자증권	40만원(9/21 신규)
9건 평균	43만8000원
9건 중앙값	45만원

9건 가운데 매수 5건, 의견 없음 4건입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3126억원, 2027년은 4226억원입니다.

기사가 적은 세 가지

- 1** 노바티스 계약 품목 대부분이 임상 단계여서 현금 유입이 늦을 수 있습니다.
- 2** 미국 IRA에 따른 약가 인하 우려와 비공개 타겟의 상업가치 불확실성
- 3** 영업이익 추정치 분산도가 2028년 31.3%로 커집니다.

알테오젠 점검 항목

- 1 평균 목표주가는 현재가보다 **68.8%** 높습니다.
- 2 키트루다 큐렉스 비중은 4분기 **14%**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3 4분기 SC 침투율, 노바티스 타깃 확정, 추가 기술이전을 점검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한국경제

LIG D&A의 중남미 공략

리마 대표사무소를 열고 대드론 방호체계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7월 페루 대표사무소 개설

파견 인원 10여명으로 확대

2026-10-04 11:21 · 안시욱 기자

— 숫자로 보는 중남미 진출

콜롬비아에서 페루로

콜롬비아 현지사무소

2011년

국내 방산기업 최초

해성 미사일 수출

16발

이듬해 콜롬비아 · 첫 유도무기 수출

내년 하반기 파견 인원

10여명

연구인력 포함 · 현재 4~5명

— 페루 사무소

영업부터 유지보수까지

- 1 HD현대중공업 함정 **레이더·전자전 장비**와 현대로템 전차 컴퓨터를 지원합니다.
- 2 페루 해군과 **주 1회** 정기 회의를 엽니다.
- 3 인력 확대는 페루에서 짓는 **3400t급 호위함** 장비 설치 지원을 위해서입니다.

— 다음 시장

국지전 방호에서 기회

- 1** 중남미 지역은 전면전보다 **마약·불법 광물** 관련 내부 분쟁이 잦습니다.
- 2** 예산 제약으로 **오래 쓸 무기**를 선호해 사후지원 역량으로 공략합니다.
- 3** **도미니카공화국·가이아나**에 소프트킬부터 하드킬까지 대드론 체계를 제안합니다.

— 한눈에 정리

LIG D&A 중남미 전략

- 1 7월 페루 리마에 **중남미대표사무소**를 열었습니다.
- 2 내년 하반기 파견 인원을 **10여명**으로 늘립니다.
- 3 방공체계보다 **대드론 방호**로 주변국 시장을 넓힐 계획입니다.

한국경제

상폐 불복 소송, 거래도 멈춰

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코스닥 퇴출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시총 200억원 미만 72곳

주가 1000원 미만 44곳

2026-10-04 16:52 · 전예진 기자

멈춘 정리매매와 거래

기업	상황
주연테크	가처분 인용
케이엠제약	가처분 인용 뒤 거래정지
세진티에스	10/2 정리매매 중단
에이에프더블류	7일 상장폐지 보류
골드앤에스·핀텔	가처분 신청

세진티에스는 10/2 정리매매 중 13.55% 오른 1031원에 마감했습니다.

— 남은 절차

인용 뒤에도 남은 절차

- 1** 거래가 재개되기 전까지 주주는 **주식을 팔 수 없습니다.**
- 2** 거래소가 이의신청하면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3** 본안소송이 항소·상고로 가면 분쟁이 **1년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상장유지 기준

높아지는 시총 문턱

코스닥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

지난해 40억원



올해 1월 150억원



올해 7월 200억원



내년 7월 300억원



소형주 다수가 강화된 기준의 영향권에 있어 소송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 수 있습니다.

— 시장의 평가

시험대에 오른 퇴출 정책

- 1** 분쟁이 번지면 부실기업 퇴출 정책 효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2** 시총만으로 정상 기업을 퇴출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3** 거래소가 거래 재개 조건과 정리매매 보류 원칙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한눈에 정리

상폐 소송의 후폭풍

- 1** 법원이 시총 미달 기업의 **상장폐지 효력정지**를 인용했습니다.
- 2** 정리매매 중단과 거래정지로 **투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 3** 상장유지 시총 기준은 내년 7월 **30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한국경제

쉬어도 시장은 떠나지 말자

필자는 과열이 식은 지금도 코스피가 주요국보다 싸다고
봤습니다.

코스피 선행 PER 6.96배

3분기 코스피 -16.5%

2026-10-04 13:00 ·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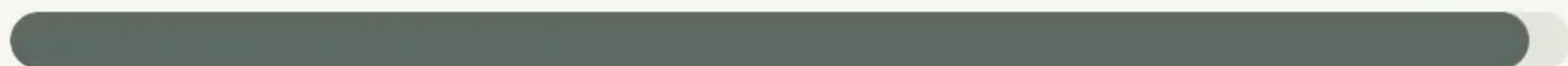
— 과열은 식었다

레버리지 ETF 거래 급감

하루 거래대금 · 5/29 → 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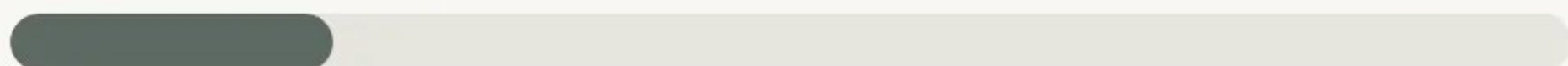
레버리지 ETF 5/29

14조6353억원



레버리지 ETF 9/23

3조1310억원



단일종목 5/29

7조8149억원



단일종목 9/23

5442억원



당국은 기본예탁금 3000만원, 사전교육 3시간, 관련 광고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 지수와 개인 계좌

수익률 1위, 계좌는 손실

3분기 코스피(9/23 기준)

-16.5%

주요국 가운데 낙폭 최대

연초 대비 코스피 수익률

68%

대만 66%보다 높은 1위

3분기 SK하이닉스

-29.7%

삼성전자는 -14.2%

본전 근처를 경계

- 1 필자는 주가가 원금 근처로 돌아올 때 심리가 가장 흔들린다고 봤습니다.
- 2 이익 난 주식은 일찍, 손실 난 주식은 늦게 파는 경향이 처분효과입니다.
- 3 9천 포인트를 기준으로 삼는 앵커링도 경계할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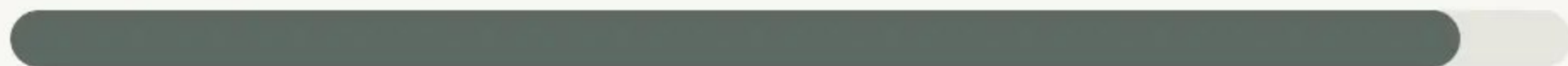
— 주가 수준

두 종목 배도 낮은 PER

9/23 기준 코스피 P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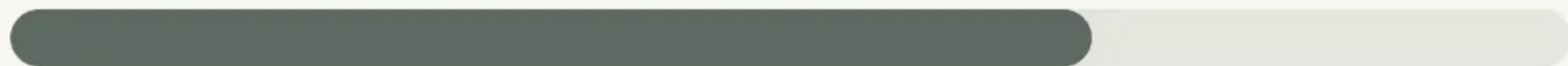
코스피 트레이일링 PER

13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외 선행

약 9.7배



코스피 선행 PER

6.96배



두 종목 시가총액은 연초 대비 154% 늘었고 나머지 종목은 15% 늘었습니다. 9.7배는 필자 추정입니다.

지루한 장세를 버티는 법

- 1** 지정학 리스크, 물가, 미·중 무역 분쟁 등 확인할 변수가 많다고 봤습니다.
- 2**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 3** 빌린 돈이 아니라면 계좌를 자주 보지 않는 편이 낫다고 봤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

- 1 한국 증시의 과열은 레버리지 ETF 거래 감소와 함께 식었습니다.
- 2 코스피 선행 PER 6.96배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 3 필자는 원금 근처에서 시장을 떠나는 일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한국경제 · 연금 재테크

한국경제

남 따라 사면 은퇴자산 줄어

필자는 군중심리 대신 장기 분산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연금투자 3가지 원칙

TDF 자동 자산배분

2026-10-04 08:00 · 오원석 한국투자신탁운용 연금담당

한국경제 「"남들따라 샀다가 은퇴자산 날린다"...연금투자 세가지
원칙」 (2026-10-04)

1/5 · TOP PICKS 주식

— 원칙의 사례

마이클 버리의 선택

- 1** 2005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의 위험을 데이터로 판단했습니다.
- 2** 주류 금융인들이 부동산 불패를 믿을 때 주택 시장 하락에 투자했습니다.
- 3** 2008년 시장 붕괴 때 원칙을 지킨 매니저들이 성과를 냈다는 설명입니다.

추격 매수의 함정

- 1** 필자는 상반기 코스피 급등 때 소외 공포(FOMO)로 무차별 매수가 나왔다고 봤습니다.
- 2** 1만포인트 돌파 같은 장밋빛 전망 속에 산 투자자들이 조정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 3** 변동성 장세에서 시장을 빠져나가는 행동이 은퇴자산을 깎는다고 봤습니다.

— 연금투자 원칙

해외 연금투자자의 3원칙

원칙	내용
글로벌 분산	우량자산에 분산투자
위험 조절	연령대별 위험 비중 조정
장기 적립식	10년·20년 이상 꾸준히 투자

TDF(생애주기펀드)는 은퇴 시점에 맞춰 주식·채권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시장 충격을 나눠 줍니다.

— 한눈에 정리

연금은 원칙으로

- 1 필자는 남을 따라 산 투자가 은퇴자산을 줄인다고 봤습니다.
- 2 원칙은 분산·위험 조절·장기 적립식 투자입니다.
- 3 TDF는 급락장에서 함께 빠져나가려는 마음을 줄여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 · 자산 컨설팅

한국경제

증여 뒤 후회 줄이는 신탁

필자는 생전 증여 방법으로 증여안심신탁을 소개했습니다.

부모가 조건 설정

신탁 재산에도 증여세

2026-10-04 09:29 · 김동현 교보생명 웰스매니저

— 신탁의 구조

부모 조건대로 관리

- 1 증여 뒤에는 부모가 재산 관리에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 2 수탁자가 계약 목적대로 관리하다 조건이 되면 수익자에게 넘깁니다.
- 3 신탁으로 넘긴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습니다.

— 활용 방법

계약에 담을 수 있는 것

- 1** 자녀의 무분별한 처분을 제한하는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 2** 생활비나 임대수익만 정기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3** 부동산은 임대 수익 귀속을 따로 설계하고 소유권 이전도 가능합니다.

증여안심신탁 요점

- 1** 부모가 정한 조건과 관리 방법을 계약에 반영합니다.
- 2** 증여 재산의 낭비·손실 걱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3** 필자는 재산이 증여 목적대로 쓰이게 하는 것이 성공적인 증여라고 봤습니다.

한국경제 · 프리미엄9 단독

한국경제

고용 감소 우려 보고서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시 사업주 다수가 고용·임금을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업주 78% 불리한 대응

추가 인건비 연 1조3500억원

2026-10-04 15:38 · 곽용희 기자

한국경제 「[단독]"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시 폐업 늘고 고용 감소"」 (2026-10-04)

1/6 · TOP PICKS 주식

— 사업주 대응

41명 중 32명이 불리한 대응

근로기준법 적용 시 대응 방법 · 응답 수

고용 조정 16명(39%)



쪼개기 고용 8명



임금 조정 5명



근로시간 조정 3명



별도 대응 없음 7명(17%)



고용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대전 음식점·숙박·소매업 사업주를 심층 면접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규모

2024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수

132만4844곳

전체 사업체의 62.9%

종사자 수

317만8175명

전체의 약 17%

가산수당만 적용 시 추가 인건비

1조3500억원

연간 · 연구진 추산

— 다른 조사

조항별 부정 응답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 · 5인 미만 835곳

휴업수당 84.1%



유급 연차휴가 80.5%



공휴일 유급 보장 79.3%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77.6%



한국경제 「[단독]"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시 폐업
늘고 고용 감소"」 (2026-10-04)

— 업종별 부담

쪼개기 고용 우려

- 1** 음식점업은 유급 연차휴가, 숙박업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가장 부담스러워했습니다.
- 2** 소매업은 13명 중 9명이 해고 제한을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꼽았습니다.
- 3** 지난해 초단시간 근로자는 177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정부 보고서 요약

- 1** 이재명 정부는 5인 미만 **전면 적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 응답 사업주의 **78%**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3** 이철규 의원은 업종·규모별로 **적용 시기와 범위를** 달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